“근일 대종사여, 무생락 누리소서”

〈無生樂〉

7월 15일, 의성 고운사서
원로회의장 영결 · 다비식
선풍 진작 · 후학 양성 헌신

의성 고운사=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고운사 천년숲길 다비식에서 스님과 신도들이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모습.



7월 15일 열린 현봉당 근일 대종사의 영결식에서 문도 스님들이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평생을 수행과 대중 교화에 힘써 온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현봉당 근일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7월 15일 의성 고운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고운사 템플스테이관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장의위원장 불영 자광 대종사(조계종 원로의장)는 영결사를 통해 “청빈한 수행자의 표상답게 대종사님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살다가 빈손으로 가운루와 우화루를 건너 홀연히 떠나시지만, 여기 모인 사부대중은 대종사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며 “부디 이 사바세계에 다시 나투시어 중생의 마음마다 모두 연꽃이 만개하게 하소서”라고 염원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원로회의 부의장 익산 도후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에서 “대종사께서는 경봉·성철 스님 등 당대 선지식 문하에서 수행하시어 한국 선불교의 정통 법맥을 이은 선지식이었다”며 “고운사·부석사·삼보사 조실로 추대돼 후진 양성과 선풍 진작에 힘쓰시어 출가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보이신 종단의 큰 어른이셨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제 조계(曹溪)의 맑은 물로 조주청다(趙州淸茶)를 다려 올리니 무생락(無生樂)을 누리소서”라고 설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도사에서 “스님께서는 일찍이 법을 품으신 이래, 당대 선지식들의 종풍을 온몸으로 참구하셨다”며 “제방의 선원에서 용맹정진하며 본래면목을 조복받기 위한 엄정한 구법의 세월은 후학들의 올곧은 지남이 됐다”고 추모했다. 이어 “바라옵건대 세세생생의 대원력으로 다시금 사바세계에 오시어 캄캄한 마음에 지혜의 안목을 열어주소서”라고 염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조사를 통해 “대종사님께서 평생 보여주신 검박한 수행정신과 종단을 향한 원력을 잊지 않겠다”며 “대종사님의 무량한 법량을 우러르며 오래도록 그 원력과 보리심이 세상에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발원한다”고 애도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도 조사에서 “우리 비구니 대중은 스님께서 보여주신 수행의 엄격함과 대중을 향한 따뜻한 자비심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며 “스님께서 남기신 선해(禪海)와 대원력은 우리 가슴속 등불로 남아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참석 대중들의 헌화 후 문도대표 호성 스님은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영결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저희 제자들은 앞으로 큰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어른 스님들을 받들면서 열심히 정진할 것을 맹세드린다”고 인사말 했다.

영결식 후 스님의 법구는 인로왕번을 앞세운 만장행렬과 함께 다비장인 고운사 천년숲길 광장으로 이운됐다. 이어 “스님! 불 들어갑니다”라는 외침과 함께 거화가 진행됐고, 사부대중의 염불 속에 다비는 회향됐다.

현봉당 근일 대종사는 1960년 은해사에서 도원 스님을 은사로 삭발염의하고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상원사 청량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하며 경봉·성철·전강·향곡·구산 스님 등 선지식들로부터 참선을 지도받았다. 1980년 고운사 주지로 부임해 고금당선원을 개원하는 등 참선 대중화와 선풍 진작에 크게 기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재심호계위원, 원로의원, 능인중·고등학교 이사장을 역임했다. 봉정사·고운사·부석사·삼보사 조실로 주석하며 후학을 제접했다. 7월 11일 법랍 66년, 세수 87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다.

현봉당 근일 대종사의 49재는 △초재 고운사 7월 17일(금) 10시 30분 △2재 부석사 7월 24일(금) 10시 30분 △3재 봉정사 7월 31일(금) 10시 30분 △4재 광흥사 8월 7일(금) 10시 30분 △5재 운람사 8월 14일(금) 10시 30분 △6재 부석사 8월 21일(금) 10시 30분 △막재 고운사 8월 28일(금) 10시 30분에 봉행된다.

“사찰숲, 자연공존지역 적용 필요”

조계종 환경위, 7월 9일 세미나
생물다양성 보전 등 가치 재확인



사찰숲을 국제 생물다양성 보전 체계인 자연공존지역(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이하 OECM)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수행환경으로서의 사찰숲이 오랫동안 생물다양성 보전과 ‘자연 공존’ 가치를 실현해왔기에 OECM으로 등록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진각 스님, 이하 환경위)는 7월 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수행환경 보호를 위한 사찰숲 자연공존지역 이해와 적용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세미나는 OECM 개념 공유를 통해 사찰숲의 공익적 가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OECM은 법적 보호지역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을 뜻한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육상·해양의 30%를 보호지역과 OECM으로 관리하는 ‘30×30’ 목표를 추진 중이며, 정부도 법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발표자들은 수행환경으로 보전돼 온 사찰숲이 생물다양성과 자연 환경을 유지해온 만큼 OECM 적용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사찰숲의 과거와 현재: 수행환경 보호의 역사 및 제도권 보호지역’을 주제로 발표한 오충현 동국대 교수는 “사찰숲은 그저 산림이 아니라 수행환경과 함께 발전해 온 공간”이라며 “그 역사는 1700여 년으로 추정되며, 수행·생활·산림 관리가 같이 이어져 온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학영 국립공원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자연공존지역 활용과 사찰 수행환경 보호의 정합성’ 발표에서 OECM 도입 목적과 그 함의를 강조했다. 허 연구원은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사회 주민들의 ‘권리 존중’을 위해 생태계 보전 패러다임이 구축돼야 한다”며 “OECM이 ‘자연공존지역’으로 풀이되는 이유도 인간과 자연이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행·마음치유 공간으로만 여겨진 사찰숲이 앞으로 ‘자연 공존 문화’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석환 부산대 교수는 ‘사찰숲의 미래 방향과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OECM 적용 방향을 짚었다. 홍 교수는 “수행공간이라는 사찰 본연의 모습을 간직하면 사찰이 자연스럽게 자연 보전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국가 중심 관리 체계로 인해 약화된 사찰의 자연적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국가유산청 등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현희 기자

동국대, 첫 교내 하안거 입재

종학연구소, 7월 13일 선명상홀서
학부 · 대학원생 35명 평일 정진
8월 12일까지 30일간 참선 수행



건학 120주년을 맞은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방학 기간 중 대학 구성원을 위한 30일 하안거 수행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운영한다. 강의실에서 배우던 불교를 직접 수행으로 체험하며 마음을 돌아보는 새로운 시도로, 대학 내 수행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는 7월 13일 중앙도서관 4층 선명상 홀에서 ‘2026년 동국대 하안거 30일 수행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

하안거는 8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밀도 높은 참선과 수행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하안거에는 교직원과 대학원생, 학부생 등 동국대 구성원 35명이 동참했다.

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입재 법문에서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라는 말이 있다”며 “3일을 넘어 이곳에서 30일 동안 진득하게 나를 들여다보면 진정한 행복을 찾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이 그동안 학교에서 접한 불교 이론을 실제 수행으로 연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수현(50) 동국대 선학과 명상수행코칭전공 석사 과정 학생은 “학교에서 이론은 많이 배우지만 실제 참선을 집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적었는데, 실참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어서 학우들과 동참하게 됐다”며 “실제로 이론을 적용하게 돼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민성(25)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학생(불교동아리 ‘캠플스테이’ 부회장)은 “과 특성상 몸을 단련할 기회는 많았지만 마음까지 챙기지 못했다”며 “불교동아리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을 알게됐고, 이번 수행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겨 좋다”고 기대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탁 트인 풍경이 펼쳐진 선명상홀에서 일렬로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참선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내면을 차분히 들여다보며 수행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종학연구소는 “학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30일간의 하안거 수행인 만큼 구성원들이 일상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고 진정한 휴식과 안정을 찾아가는 특별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지운 기자

현대불교신문

구독료 자동이체 신청 & 신규 구독 감사 이벤트

더 편리한 구독, 더 좋은 인연

지로 독자 자동이체 전환
매월 구독료 납부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구독료 자동이체(CMS)로
간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신규 구독 독자 선물
현대불교신문 신규 구독 신청 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자동이체 전환 및 신규 구독 신청시
지구사랑실천 ‘친환경 EM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대상 자동이체(CMS) 전환 독자 / 신규 구독 독자

문의 02-2004-8212